

한우

전국한우협회, 3억 상당 노란우체통 경품 추첨
경남 거창읍 장영옥 씨 1등 당첨



전국한우협회(회장 김남배)가 6억 원(3억-경품, 3억-진행비용)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2012 한우희망 노란우체통’ 행사에 경남 거창읍 장영옥(59) 씨가 2천만원 상당의 자동차에 당첨됐다.

한우협회는 지난 1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1만471개 정육업소에서 응모한 노란우체통 행사 추첨식을 진행, 4,151명의 당첨자를 추첨했다.

이날 1등에는 경상남도 거창읍 상리면에 거주하는 장영옥 씨가 당첨의 영예를 안았다. 장영옥 씨는 본지와와의 전화통화에서 “너무 뜻밖이라 감사할 따름이다”며 “한우농가는 어렵다고 하는데 쇠고기 값이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고 협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첨식에 참여한 전국한우협회 김남배 회장은 “협회는 주로 농협과 전국의 대형마트 중심의 행사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한우를 판매하는 4만5천여 개의 일선 정육업소 분들과 같이 이번 행사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번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날 참여한 축산기업중앙회 유재춘 회장도 “내년에도 (이런 이벤트를 통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안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2등에는 200만원 상당의 황금소 10명, 3등에는 100만원 상당의 LED TV 40명, 4등에는 15만원 상당의 한우갈비세트 100명, 5등에는 5만원 상당의 한우웰빙부위세트 3천명, 온라인 당첨자 1천명에게는 4만원 상당의 한우육포세트가 수여된다. 당첨자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돼 있다.

한편 한우협회는 이 날 추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초경찰서 관계자도 배석하게 했으며 이번 행사의 시상식은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전국한우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2013.01.15

한돈

올 설에는 한돈 주고 순금 받자!
한돈자조금, 국산돼지 한돈 2013 설 한돈드림캠페인 진행

국산돼지 한돈의 소비촉진단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지난 1월 9일부터 2월 15일까

지 ‘2013 설 한돈드림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돈드림캠페인은 한돈자조금에서 2010년부터 웰빙부위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 유명 육가공 및 유통 브랜드와 함께 진행하는 ‘한돈 선물세트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이웃에게 정성껏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우리의 문화가 반영된 따뜻한 명절 캠페인이다.

2013 설 한돈드림캠페인은 ‘가까울수록 더’라는 컨셉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새해 복과 함께 돈(豚), 즉 돼지고기를 많이 선물하고 받자는 내용이다.

이번 설 드림캠페인에는 지난 추석 명절캠페인과 동일하게 한돈햄 선물세트와 함께 돼지갈비 등 신선육 선물 세트를 포함하며, 롯데햄, 목우촌, 도드람포크 등 총 23개 브랜드사가 참여했다. 특히 대형마트 4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소속 25개점)는 물론 각 브랜드사 온라인몰 및 농협e쇼핑, G마켓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다양화했다.

한돈자조금은 소비자들의 보다 편리한 구매를 위해 판매처 확인 가능한 한돈 드림캠페인 홈페이지를 (<http://dream.han-don.com>) 운영하고 있으며, 구매 상담 및 문의를 위한 콜센터(1577-9348)를 1월 9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한돈 드림캠페인 홈페이지에서는 1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선물용 한돈(햄/신선육 선물세트) 및 요리용 한돈 구입고객 대상으로 한돈 구매 인증샷 올리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첨을 통해 순금 10돈 등 총 6,800만원 상당의 순금과 국산돼지고기 한돈선물세트를 선물로 증정한다.

또한 스페셜 이벤트로 한돈 구매 고객 중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위해 ‘무료 한돈 드림 셔틀버스’ 운영 및 귀향길 주유비 지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돈 드림캠페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양계

계란 생산농가 “산란계 사육수 10% 자율 감축”

대한양계협회는 산란계 사육수 과잉에 따른 피해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사육수 10% 자율 감축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지난 1월 7일 열린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산란계 사육수가 6천만수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생산비 이하의 계란 가격이 장기간 지속돼, 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농가는 “생산비 이하의 계란값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암울한 상황”이라면서 “대군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사육규모를 늘리고 있어 중소농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농가도 “사육수 과잉인데도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농가들의 힘을 모아 노계 도태 등 자율



강원 양봉브랜드 나온다

강원도, 16억7000만원 지원...균일제품 생산 추진

강원도가 (사)한국양봉협회 강원도지회와 함께 양봉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이는 강원지역에서 생산하는 양봉꿀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생산·판매가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농가별로 이뤄져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브랜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한국양봉협회 강원도지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양봉꿀을 생산해야 한다.

도는 사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사양관리와 균일한 제품 생산을 지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벌통 교체 및 자동채밀기와 화분건조시설, 자동탈봉기 구입 등 11개 사업에 16억7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3,897톤(1,061농가)의 꿀이 생산됐으나 통일된 브랜드 없이 농협과 양봉조합에 납품하거나 개별 판매해 부가가치 극대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농민신문 김철웅 기자 2013.01.21



청양 농기센터 FTA대응 사슴 컨설팅 교육

충남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지난 1월 17일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사슴연구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슴사양관리 기술교육 및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현대사슴목장 이봉식 대표의 ‘사슴의 생리구조와 사료 주는 요령’이라는 주제로 사슴농가가 사육 시 꼭 지켜야할 사양관리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FTA에 대응해 청양 사슴농민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사슴의 먹이로 적합한 사료는 첫째로 수분함량이 낮아야 하고 둘째로 조섬유 함량이 낮아야 하며 셋째로 단백질 함량은 높고 넷째로 조지방 함량이 적고 다섯째로 적당량의 탄닌을 함유하고 있어야 사슴에게 좋은 사료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칩잎, 아카시아나무잎, 떡갈나무잎이 사슴에 좋은 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기센터 강상규 소장은 3농 혁신의 주역으로서의 사슴연구회의 역할을 강조했고, “사슴연구회와 농업기술센터는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청양농업 발전과 더불어 잘사는 청양건설의 핵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2013.01.20